日月時報9 - 1935. 02. 10/ 1면/ 4단

朝鮮儒敎의 源流

朴淵祚

東洋은 世界의 東球이오, 朝鮮은 東球의 極東이다. 「朝日이 最先鮮明」함은 그 文化가 일즉이 發達됨을 象徵함이 아닌가 四時에는 봄이 머리가 되고 五常에는 仁이 읏뜸이 되나니 녯적으로부터 「東方君子之國 禮儀之邦」이라 稱道함이 엇지 偶然한 바리오. 氣候가 溫煖하고 性質이 仁厚하야 論理의 思想과 道德의 風化가 特하 먼저 發達하얏슴이다.

現代人이 이르기를 世界問名의 祖國이 五가 잇으니 一은 中華, 二는 印度, 三은 安息, 四는 埃及, 五는 墨西哥라하나 朝鮮은 그 歷史가 悠久함으로던지 人物의 偉大함으로던지 學術의 精微함으로던지 以上 五個國에 不及할 點이 업스나 오즉 近代에 와서 文化가 막히여 흐르지 못하고 學術이 따라서 잠기여 나타나지 못한 것은 民族의 羞恥라 안을 수업슬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朝鮮文明의 活路를 차즈려하면 먼저 儒敎에서 求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그러함으로 儒敎原流에 對한 本事實을 揭載하야 一般에게 供覽하려하거니와 紙面이 잇슴으로 그 事蹟의 一部를 簡單히 表現하엿슴에 不過한 즉 讀者는 맛당히 一臠으로써 全鼎의 味를 맛보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四千二百六十八年 前에 檀君게서 太白山檀木下에 降臨하사 盛德이 잇슴으로 國人이 推戴하야 王으로 뫼시니 이는 中國의 唐堯時代라 君臣 男女의 別과 堂室衣服의 制度를 創始하시며 江華 麻尼山에서 天에 祭하시고 三郎城을 쌋게 하시며 太子扶婁로 하야금 玉帛을 가저 夏禹와 塗由에 會하야 開闢時代의 鴻化는 東方 數千載 道德 風化의 源泉이 되엿던 것이다. 그 後 千餘年을經하야 箕子가 東來하야 文聖王이 되시매 詩書禮樂과 百工技藝從者五千人」이라 洪範九疇로써 周武王께 陳하야 中洲의 道統를 啓發하시고 그 道法으로써 朝鮮에 傳受하시며 八條의 敎와 井田法을 實施하시며 王受兢은 德行이 特秀한 者-라 士師를 拜하야 大行한지라 大槪 洪範九疇는 即 堯舜禹의 傳受이신 天德王道의 要訣인데 箕子게서 이로써 敎授하심은 聖道의 心法이 東方

에 移轉되엿슴을 可히 推知할 것이다.

高句麗 小獸林王 時에는 비로소 太學을 세워 李文眞으로 하야금 博士를 拜하야 子弟를 敎育하며 村巷에는 大屋을 建하고 名曰扃堂이라 하야 子弟未婚者를 「讀書或習射」케 하니 當時는 乙支文德이 隋將에게 送한 詩를 보면 文學의 發達을 可히 알 것이니 詩曰 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旣高 知足願云止라 하엿고 東方의 詩는 이로써 嚆矢라 할 것이다.

百濟에서는 文督이라는 官을 置하야 學術을 奬勵하며 百濟記 百濟新撰이라는 著作도 잇섯다. 近肖古王 時에는 五經博士를 置하야 人民을 敎育하며 博士王仁으로 하야금 論語와 千字文을 齎하야 日本에 傳授케 하니 日本의 文化가 크게 裨益되엿다 하엿다.

新羅는 朴 昔 金 三性이 相繼하야 道德政治의 根本을 세우고 聖德王十六年에 金守忠이 唐에 入하야 文宣王 十哲 七十二弟子의 圖像을 求하야 오거늘 太學을 세워 奉安하고 司業博士大舍 等 官員을 增置하야 禮記 周易 論語 孝經 春秋 詩書 等 諸經을 敎授하야 諸生이 이에 通達한 後 選擧登用케 하고 그 不能한 者는 出仕를 許치 아나한 故로 儒術이 盛行하야 新羅가 亡하기까지 學者는 薛先生을 宗師로 하엿고 國王이 太學에 臨하야 講誦을 親히 하시며 聰俊弟子를 選拔하야 唐에 留學케 하엿나니라.

弘儒 侯薛先生의 諱는 聰이오, 字는 聰智오, 弘儒侯는 爵謚이니 新羅十賢中一이라 太宗 武烈王 二年 乙卯에 慶州에서 生하니라. 父元曉는 桑門의 法師이니 一日은 노래하여 曰 「誰許沒柯斧 我作撑天柱」호리라하니 사람이 다 그 뜻을 아지 못하더라.

時에 太宗이 드르시고 갈오대 此師가 貴婦를 어더서 賢者를 産코자 함이로다. 國에 大賢이 잇스면 利莫大焉」이로다. 時에 公主가 잇서 瑤石宮에 居하더니 官吏를 勅하야 法師를 차즈니 南由蚊用橋에서 맛나니 그짓 水中에 떠러저 衣袴가 다젓거늘 吏가 잇끄러 宮에 드러와 「沐浴換衣」하고 因하야 留宿케 하엿더니 公主가 果然 有娠하야 一子를 産하니 즉 聰이라 性이 明睿聰敏하야 道術에 通達하고 方言으로 九經을 解釋하야 後生을 訓導하고 吏讀를 지어 官府文牒에 使用케 하니 當時에 宗師가 되여 儒學의 興起가 이로조차 비롯하얏더라 그러나 그 微言과 著作이 世에 傳함이 적은 것은 遺憾이라 할 것이다. 間或 그-製作한 바 碑銘의 遺傳함이 잇으나 文字가 缺落하야 그 如何한 것을 알 수 업나니라. 일즉이 花王誡로써 王에게 陳하야 드듸여 高秩에 擢拔되엿나니 이제 花王誡原文을 記하면 如左하니 「神文大王 以仲夏之月 處高明之室 顧謂聰 曰 今日 宿雨初歇 薰風微凉 雖有珍饌哀音 不如高談善謔 以敍伊鬱 吾子必有異聞 盍爲我陳之忍 曰 唯臣聞花王之始來也 植之以香園 護之

以翠幕 當三春而發艷 凌百花而獨出 於是自邇 及 遐 艷艷之靈 夭夭之英 無不奔走上謁 猶恐不及 忽有一佳人 朱顔玉齒 鮮粧靚服 伶俜而來 綽約而前 曰 妾履雪白之沙汀 對鏡淸之海面 沐春雨以去垢 快淸風而自適 其名薔薇 聞王之令德 期薦枕於香帷 王其容我乎 又有一丈夫 布衣韋帶 戴白持杖龍鍾而步 傴僂而來 曰 僕在京城之外 居大道之傍 下臨蒼茫之野景 上倚嵯峨之山色 其 名 曰 白頭翁 窃謂左右 供給雖足 膏粱以充腸 茶酒以淸神 巾衍貯藏 須有良藥以補氣 惡石以蠲毒故 曰 雖有絲麻 無棄管蒯凡百君子 無不代匱 王亦有意否 或 曰 二者之來 何取何捨 花王 曰 丈夫之言亦有道理而佳人難得 將如之何 丈夫進而言 曰 吾謂王聰明識理故 來焉耳 今則非也 凡爲君者 鮮不親近邪佞 疎遠正直 是以 孟軻不遇以終身 馮唐郎潛而皓首 自古如此 吾其奈何 花王 曰 吾過矣」於是 王愁然作色 曰 “子之寓言 誠有深志, 請書之 以爲王者之戒.” 遂擢聰以高秩이라 하엿나니라. 高麗 顯宗 十三年에 弘儒侯의 謚를 주어 聖廟에 從祀하얏고 朝鮮 明宗 十六年에 慶州에 西岳書院을 세우고 先生과 太大角干 金庾信과 文昌侯 崔致遠을 亭祀하니라. 文昌侯崔生의 諱는 致遠이오, 號은 孤雲이오, 文昌侯는 爵謚라 新羅 憲安王 元年 丁丑에 慶州에서 生하니 風儀가 아름답고 精微하며 學을 조아하더니 年十二에 海舶을 따라 唐에 드러가서 스승을 차자 힘써 배울세 其 父가 말하되 十年에 及第하지 못하면 吾子가 아니라 하니라. 後 五年에 及第하엿는데 일즉이 絶句을 지엇스니 詩 曰 年年 荊棘侵儒苑 處處烟滿載場 豈糾今日親宣父 豁開凡眼睹文章이라 하얏더라. 그 後에 高駢의 從事가 되여 黃巢를 칠세 그 檄文에 曰 「不惟天下之人皆思顯戮 仰亦地中之鬼已議陰誅」라 하니 黃巢가 床에서 나림 글 깨닷지 못한지라 由是로 文名이 天下에 떨첫나니라. 二十八歲에 唐에서 도라와 翰林學士와 兵部侍即이 되다. 還國할 때에 同年顧雲이 詩를 賦하여 曰 「十二乘舟渡海來 文章撼動中華國 十八橫行戰詞苑 一箭財罷金門第」이라 하니라. 此時에 弊政이 多함으로 時務十餘條를 上陳하얏는데 抜擢하야 阿飡이 되엿더니 即 時免官되다. 이로부터 仕進에 뜻이 업고 山水間에 放浪하야 「經臺榭 植松竹 枕藉書籍 嘯咏風月」에 從事하니 其文 曰 人間之要路通津 眼無開處 物外之靑山綠水 夢有歸時」라 하엿더라. 이에 家族과 갓치 海印寺에 隱居하야 老境의 歲月을 보내엿나니라. 著作한 바 文集三十卷이 傳하고 唐藝文誌에는 四六集一卷과 桂苑筆耕 二十卷이 記載되엿나니라.

顯宗 十一年에 柏淵書院을 咸陽에 세우고 先生과 佔 畢齊文忠公을 享祀하고 또 泰仁에는 武城書院이 잇나니라.

高麗가 興한 初代에는 佛敎를 崇尙하야 儒術이 衰微하얏스나 第六代成宗時에는 비로소 孔敎을 尊崇하고 國子監을 創始하야 州郡 子弟들을 習業케 하

며 經學博士를 두어써 子弟를 敎育하엿나니라. 이 때 博士 任成老가 宋에서 文廟圖와 祭器圖를 그러 오매 太學에 奉安하고 儒學을 奬勵하엿스나 科擧法 實施 以來로 士子가 詩賦에 從事하고 經學者가 鮮少하엿스며 崔文憲先生에 이르러 바야흐로 文學의 彬彬함을 보왓나리라.

文憲 公先生의 諱는 冲이오, 字는 浩然이니 海州人이라. 風姿가 魁偉하고 性操가 溫貞하며 學을 조아하고 屬文에 善하니 穆宗時에 甲科 第一人에 擢하야 太師中書令이 되고 五朝를 歷事하야 時望이 甚히 重하더라. 비로소 「樂聖 大中 誠明 敬業 造道 率性 進德 太和 待聘」의 九齊를 세우고 後進을 敎할새 四方의 學徒가 紛集하야 街巷에 充溢하더라. 暑月에 當하면 山房을 借하야 經史를 講하고 間或 詩賦로 其 次第를 定하야 唱名에 依하야 드러오게 하고 小酌을 베풀면 冠童이 左右로 버러서서 樽俎를 밧드니 進退에 儀容이 잇고 長幼가 序次-잇는지라 觀者가 嘉歎하지 안으리 업더라. 大抵科擧에 應하려하는 者는 반다시 九齊籍中에 이름을 두어 文憲公徒라 하고 海東孔子라 일카르니라. 그러나 先生은 宋有胡 安定瑗으로 同時이며 그 敎授의 功도 또한 相同하니라.